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! 세계로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7. 5.(금) 11:00 < 7.5.(금) 석간 > 배포 2024. 7. 4.(목)

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

- 신고기준 153.4억 달러로 역대 3위,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위축에도 양호한 흐름 유지
- 반도체·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소부장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 6.5% 증가
- 非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투자 최근 5년간 지속 확대되고 비중도 2.7배 증가

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153.4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△10.3%)로 역대 3위를 기록하였으며, 도착 기준으로는 69.0억 달러(△17.4%)를 기록하였다.

* '23년(1위, 171억불) 미국·유럽 지역 3차례 정상순방, '18년(2위, 158억불)은 A社 경영정상화에 따른 차입금 출자전환 등에 따른 대형 투자로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높은 실적 기록

【업종별】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6.5% 증가한 81.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전기·전자(36.4억 달러, +25.7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11.1억 달러, +102.6%), 의약(4.7억 달러, +70.6%) 등 첨단산업과 소부장 관련 업종이 증가하였다. 서비스업은 정보통신(9.9억 달러, +25.3%), 연구개발·전문·과학기술(3.6억 달러, +10.8%) 등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.

【국가별】 투자금액과 비중 기준으로 중화권(39.4억 달러, 25.7%), 일본(28.9억 달러, 18.9%), 미국(26.1억 달러, 17.0%), EU(19.6억 달러, 12.8%) 순이며, 금년 상반기에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확대되었다.

【유형별】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비중은 74.9%(114.9억 달러)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【지역별】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금액이 5년 연속 증가하여 40.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비중도 2019년 대비 2.7배 증가하였다.

* 비수도권 투자규모(억불) : '19.上9.7 → '20.上11.1 → '21.上14.5 → '22.上19.9 → '23.上38.3 → '24.上40.6
투자비중(%) : '19.上9.8 → '20.上14.5 → '21.上11.1 → '22.上17.9 → '23.上22.4 → '24.上26.5

【평가】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과거 5년간 평균(117.7억 달러)의 130% 수준을 상회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. 금년 상반기에는 특히 반도체(+120.7%)와 바이오(+207.5%) 중심으로 첨단산업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부장 투자는 69.9억 달러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여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,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금액과 비중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.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엄재영 (044-203-4080)
		담당자	주무관	정다운 (044-203-408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상세 동향**

Ⅰ. 총괄

□ **(실적) '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**는 **신고기준 153.4억불**(전년동기 대비 △10.3%)로 **역대 3위, 도착금액은 69.0억불 기록**(△17.4%)

* '23년은 미국·유럽 지역 3차례 정상순방, '18년은 A社 경영정상화에 따른 차입금 출자전환 등에 따른 대형 투자로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높은 실적 기록

< 신고금액 >



< 도착금액 >



□ **(평가) 작년 상반기 정상순방 성과**(총 31.1억 달러)**에 의한 기저효과로 금년 상반기 신고금액은 감소**하였으나, **최근 5년간 평균의 130% 수준을 상회**하는 수준으로 양호

○ **지정학적 불확실성 증폭, 고금리 지속, 환율 변동폭 확대***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**우리나라 투자환경**에 대한 **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 확인**

* 상반기 평균 원/달러 매매기준율 : ('20.上) 1,207.6 → ('21.上) 1,118.2 → ('22.上) 1,234.3 → ('23.上) 1,298.5 → ('24.上) 1,352.3

○ 반도체, 의약·바이오 등 **첨단산업*과 소부장**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**가 다수 유입되며 **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** 등에 긍정적 효과 기대

* 전기·전자(36.4억 달러, +25.7%), 기계장비·의료정밀(11.1억 달러, +102.6%), 의약(4.7억 달러, +70.6%)
** 소부장 투자는 69.9억 달러(+53.4%)로 '23년 45.6억불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

○ 또한 **非수도권 투자 금액이 최근 5년내 지속 확대**되고 **비중도 2.7배 증가**하면서 **지역균형발전 기여 전망**

* 비수도권 투자규모(억불) : '19.上 9.7 → '20.上 11.1 → '21.上 14.5 → '22.上 19.9 → '23.上 38.3 → '24.上 40.6
투자비중(%) : '19.上 9.8 → '20.上 14.5 → '21.上 11.1 → '22.上 17.9 → '23.上 22.4 → '24.上 26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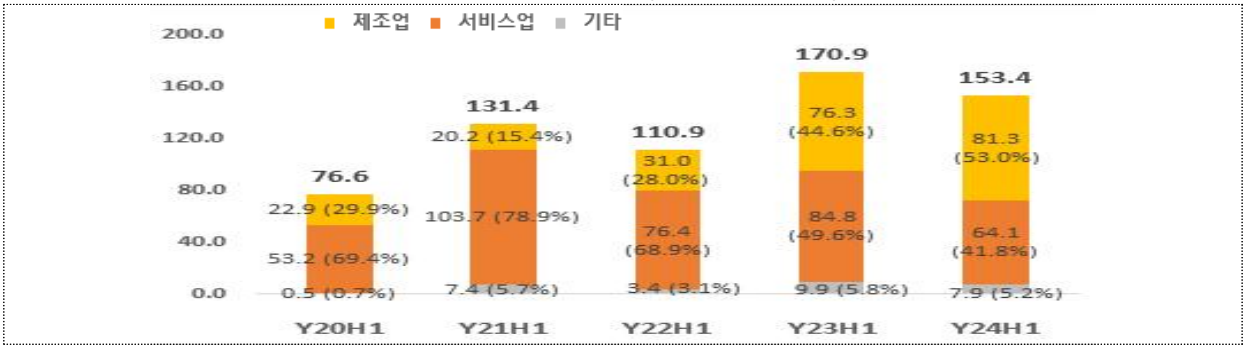
Ⅱ. 세부 동향(신고 기준, 업종별·국가별·유형별·자금별·지역별)

1. 업종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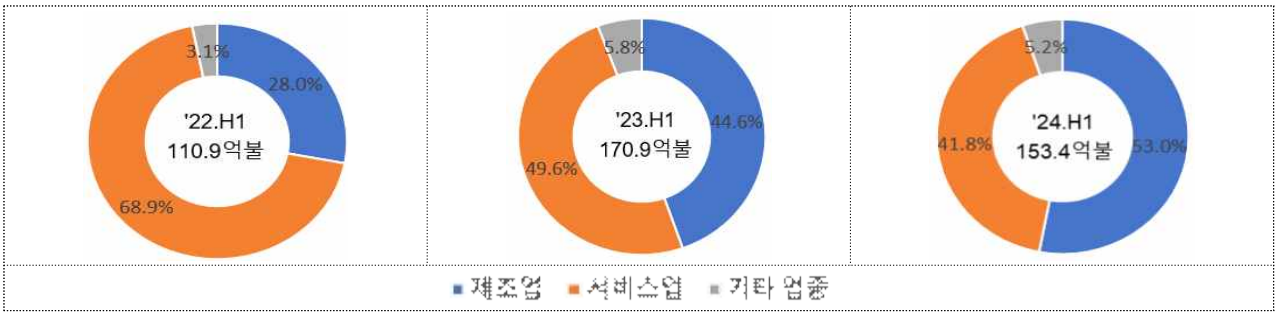
□ **제조업**(81.3억 달러, +6.5%, 비중 53.0%) **증가, 서비스업**(64.1억 달러, △24.3%, 비중 41.8%)·**기타업종**(7.9억 달러, △19.5%, 비중 5.2%) **감소**

* 기타업종 : 1차 산업(농·축·수산·광업), 전기가스·수도·환경정화업 등

< 업종별 신고금액(단위 : 억 달러) **>**



< 업종별 FDI 비중 >



○ **(제조업) 81.3억 달러**(+6.5%, 비중 53.0%)

< '23년 상반기 신고액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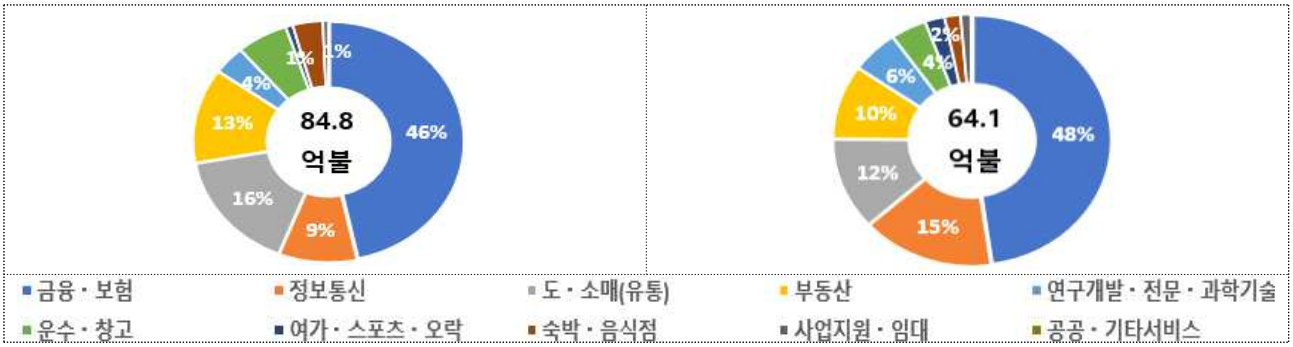


< '24년 상반기 신고액 >

- **(증가업종) 전기·전자**(36.4억 달러, +25.7%), **기계장비·의료정밀**(11.1억 달러, +102.6%), **비금속 광물**(5.8억 달러, +4,003.5%), **의약**(4.7억 달러, +70.6%) 등
- **(감소업종) 화공**(14.3억 달러, △48.5%), **운송용기계**(5.1억 달러, △14.7%) **금속·금속가공**(1.0억 달러, △3.1%) **등**

○ **(서비스업) 64.1억 달러**(△24.3%, 비중 41.8%)

< '23년 상반기 신고액 > **< '24년 상반기 신고액 >**



- **(증가업종) 정보통신**(9.9억 달러, +25.3%), **연구개발·전문·과학기술**(3.6억 달러, +10.8%), **여가·스포츠·오락**(1.5억 달러, +106.3%), **사업지원·임대**(0.8억 달러, +38.5%) **등**

- **(감소업종) 금융·보험**(30.6억 달러, △22.4%), **도·소매(유통)**(7.6억 달러, △44.3%), **부동산**(6.1억 달러, △43.3%) **등**

2. 국가별

※ 중화권 : 중국, 홍콩, 대만

□ **미국**(26.1억 달러, △28.7%, 비중 17.0%), **EU**(19.6억 달러, △32.8%, 비중 12.8%), **기타국가**(39.4억 달러, △52.0%, 비중 25.7%)는 **감소, 중화권**(39.4억 달러, +128.9%, 비중 25.7%), **일본**(28.9억 달러, +386.8%, 비중 18.9%)은 **증가**

< 국가별 신고금액(단위 : 억 달러) **>**



○ **(미국) 26.1억 달러**(△28.7%, 비중 17.0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1.4억 달러, △47.2%), **서비스업**(10.8억 달러, △27.3%) 모두 **감소**
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24.2억 달러, △31.7%) **감소**, **M&A**(1.9억 달러, +65.9%) **증가**

○ **(EU) 19.6억 달러**(△32.8%, 비중 12.8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11.1억 달러, +20.5%) **증가, 서비스업**(7.7억 달러, △51.1%) **감소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15.1억 달러, △13.2%), **M&A**(4.5억 달러, △62.0%) **모두 감소**

○ **(중화권) 39.4억 달러**(+128.9%, 비중 25.7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30.5억 달러, +225.5%), **서비스업**(8.3억 달러, +6.6%) **모두 증가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33.9억 달러, +112.1%), **M&A**(5.5억 달러, +344.9%) **모두 증가**

○ **(일본) 28.9억 달러**(+386.76%, 비중 18.9%)

- **(업종별) 제조업**(26.0억 달러, +704.5%), **서비스업**(2.9억 달러, +9.5%) **모두 증가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24.1억 달러, +353.8%), **M&A**(4.9억 달러, +659.6%) **모두 증가**

○ **(기타국가) 39.4억 달러**(전년比 △52.0%, 비중 25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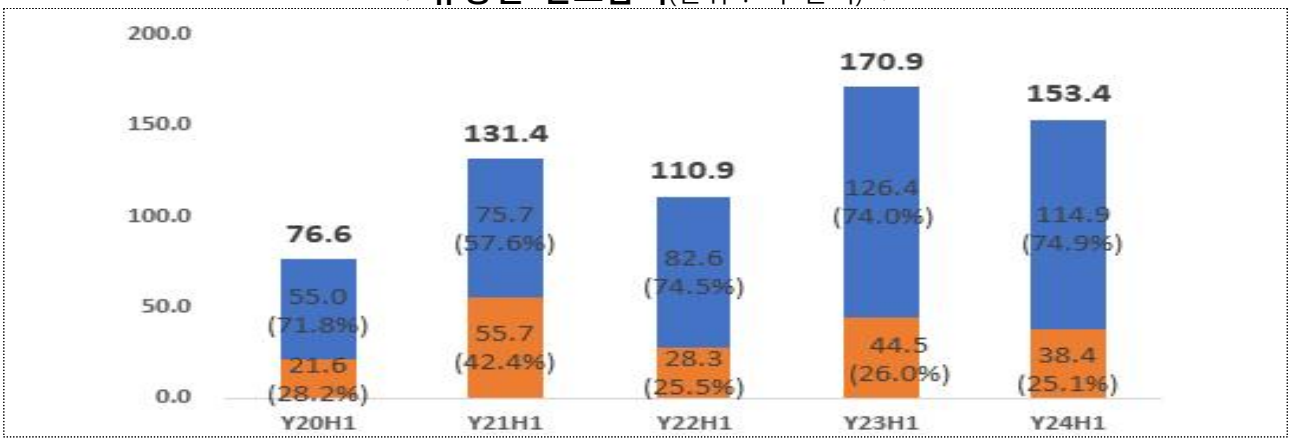
- **(업종별) 제조업**(2.3억 달러, △93.1%), **서비스업**(34.3억 달러, △21.2%) **모두 감소**
- **(유형별) 그린필드**(17.7억 달러, △66.2%), **M&A**(21.7억 달러, △27.2%) **모두 감소**

□ **(건수) 미국**(195건, +3.7%), **중화권**(552건, +22.7%), **일본**(128건, +29.3), **기타국가**(756건, +0.3%) **증가, EU**(136건, △13.9%) **감소**

3. 유형별

□ **그린필드형**(114.9억 달러, △9.1%, 비중 74.9%)·**M&A형**(38.4억 달러, △13.7%, 비중 25.1%) **모두 감소**

< 유형별 신고금액(단위 : 억 달러) **>**



○ **(그린필드형) 114.9억 달러**(△9.1%)

– **제조업**(70.0억 달러, +10.0%) **증가, 서비스업**(37.1억 달러, △31.2%) **감소**

○ **(M&A형) 38.4억 달러**(△13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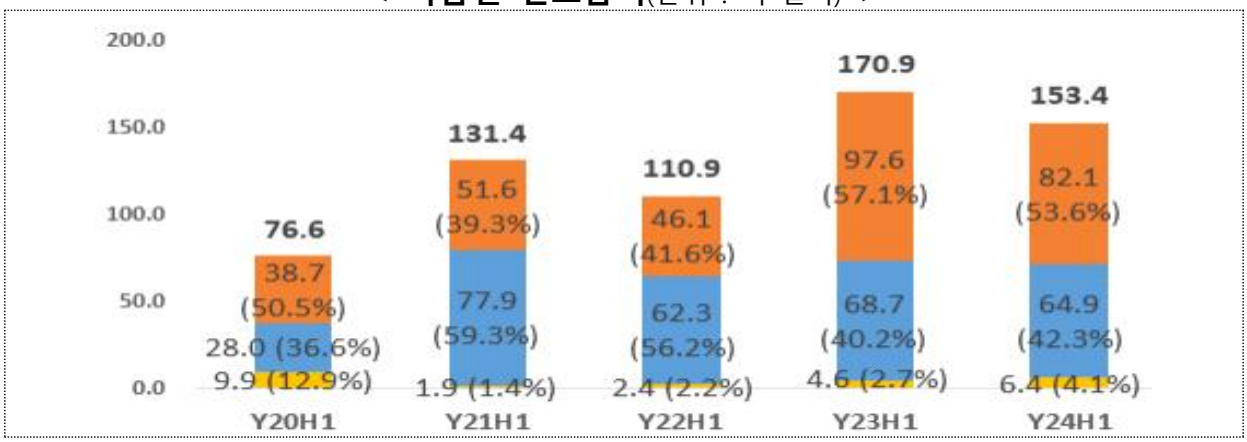
– **제조업**(11.3억 달러, △10.7%), **서비스업**(27.0억 달러, △12.5%) **모두 감소**

4. 자금별

□ **신규투자**(82.1억 달러, △15.8%, 비중 53.6%), **증액투자**(64.9억 달러, △5.6%, 비중 42.3%) **감소, 장기차관**(6.4억 달러, +37.6%, 비중 4.1%) **증가**

* 신규투자 :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
증액투자 :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,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
장기차관 :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

< 자금별 신고금액(단위 : 억 달러) **>**



○ **(신규투자) 82.1억 달러**(전년比 △15.8%)

– **제조업**(41.1억 달러, +12.2%) **증가, 서비스업**(39.2억 달러, △28.8%) **감소**

○ **(증액투자) 64.9억 달러**(전년比 △5.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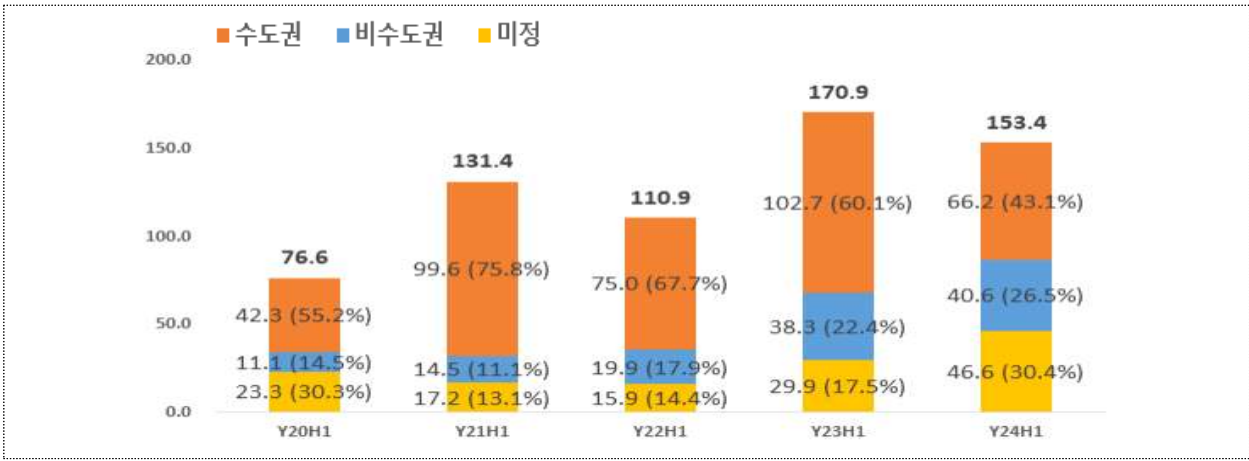
– **제조업**(36.9억 달러, +0.2%) **증가, 서비스업**(21.9억 달러, △21.6%) **감소**

5. 지역별

※ 수도권 :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/ 비수도권 : 이외 14개 시·도
미정(46.6억 달러) :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

□ **수도권**(66.2억 달러, △35.5%, 비중 43.1%) **감소, 비수도권**(40.6억 달러, +5.8%, 비중 26.5%) **증가**

< 지역별 신고금액(단위 : 억 달러) **>**



○ **(수도권) 66.2억 달러**(△35.5%)

- **제조업**(22.9억 달러, △28.6%), **서비스업**(42.7억 달러, △37.1%) **모두 감소**

* 서울(43.5억 달러, △41.4%), 인천(0.9억 달러 △70.0%), 경기(21.7억 달러, △13.9%)

○ **(非수도권) 40.6억 달러**(전년比 +5.8%)

- **제조업**(26.9억 달러, △8.2%) **감소, 서비스업**(7.5억 달러, +2.2%) **증가**

* 증가 시·도 : 충남(7.45억 달러, +253.3%), 대전(5.26억 달러, +71.4%), 전남(5.15억 달러, +205.7%), 충북(4.99억 달러, +428.9%), 제주(2.47억 달러, +484.0%), 부산(2.16억 달러, +27.6%), 대구(0.74억 달러, +279.2%),

* 감소 시·도 : 전북(7.63억 달러, △11.3%), 경북(2.82억 달러, △70.5%), 경남(0.74억 달러, △80.6%), 울산(1.10억 달러, △25.8%), 강원(0.09억 달러, △68.4%), 광주(0.06억 달러, △98.5%), 세종(0.00억 달러, △99.5%)

○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과 (사)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2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.

*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(INSC)을 따름

○ 본 자료는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, 2024년 3분기 동향 자료는 2024년 10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